

경상북도의 문화마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어모지구와 무을지구를 중심으로-

이 관 희

대구대학교 조경학과

Problems and Guidelines for Improvements of Munhwa-Maul with Special Reference to Mueur Munhwa-Maul and Umo Munhwa-Maul(a modern village) in Kyeongbook

Kwan Hee LE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Taegu

ABSTRACT

This research is concerned with environment problems related to Munhwa-Maul(a modern village) where Korean government are financially much supporting in developing housing sites and constructing houses.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to present the practical guidelines in order to improve an environmental quality of Munhwa-Maul in which will be under construction in the near future. The method for finding out the problems are based upon the most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residents with opened interview. Both Mueur Munhwa-Maul and Umo Munhwa-Maul are considered for this research because Mueur Munhwa-Maul is characterized with a modern village where is located far from the city while Umo Munhwa-Maul, near the city. Also, these Munhwa-Mauls have been firstly constructed. The interview participants are 34 persons in all. They are confined to Mueur Munhwa-Maul (16 person)and Umo Munhwa-Maul(18 person) that have been firstly constructed in Kyeongbook. According to the interviews, each 60 % of both Mueur Munhwa-Maul interview participants and Umo Munhwa-Maul ones have shown the their most positive satisfaction in a new housing and facility. It can be seen from that these figures that housing environment including facility of both Munhwa-Mauls is surely improved and successful. On the other hand, 43.8 % of Mueur Munhwa-Maul participants and 14 % of Umo Munhwa-Maul ones have particularly shown the most

* 본 연구는 1997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것임

negative satisfaction in a size of housing lot. Also, 15.6 % of Mueur Munhwa-Maul interview participant and 44 % of Umo Munhwa-Maul ones have stated the most dissatisfaction in a traffic convenience. The reasons showing these differences are likely that 90 % of Mueur Munhwa-Maul residents are farmer while 85 % of Umo Munhwa-Maul ones are not farmer. With this results the purpose of Munhwa-Maul project that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and the reality of Umo Munhwa-Maul could be never coincident.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at housing layout should be reconsidered to be appropriate for agriculture and that the government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contributions of new housing lot to real farmers. In addition, we can say

that Munhwa-Maul project should be firstly accomplished in the district far from the city rather than near the city.

Key Words :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village problem, countryside environment

I. 서론

도시화가 촉진되기 전에는 농어촌마을이란 도시가 아닌 시골지역(countryside)에 주택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써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강하다. 농어촌마을은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오랜 역사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농어촌의 환경문제는 도시화(urbanization)의 지속과 가속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래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근거한 것으로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의 목적은 농어촌마을의 재정비를 통해서 집단화를 이루어 현대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더불어 농어촌의 생산성을 제고시켜서 소득수준을 높임으로써 도시와 조화된 농어촌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이것은 보다 바람직한 농어촌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새로운 주거환경의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로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일환으로 1990년부터 처음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시작하면서부터 주택단지의 조성과 기반시설의 정비자금으로 정부가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마을사업"은 지난해까지 93개 면에

조성됐으며 2004년까지 7백 71개 면에 한곳씩 조성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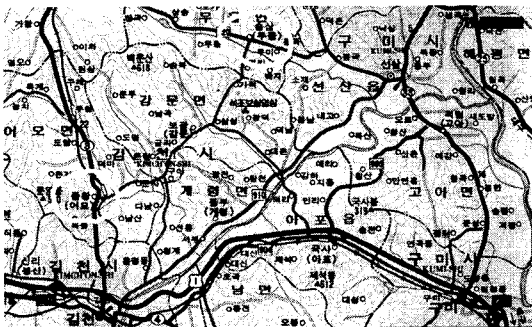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마을의 정비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나 기존 농촌마을의 역사, 문화, 생태적인 고려가 부족하고 주택구조의 현대화에 치중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농어촌진흥공사, 1996)고 평가하고 있으며 문화마을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임승빈 등, 1998), 문화마을 조성과 사업방향(이재근, 1995)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써 추진된 문화마을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은 중요하다. 문화마을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천적인 맥락에서 현재 농림수산부가 지원하고 있는 문화마을중에서 경상북도의 무을지구와 어모지구의 문화마을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의 만족도와 불만족도(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에 관한 것이다. 그 동안 문화마을에서 몸담고 살아온 사람들의 체험은 앞으로 더욱 바람직한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경상북도의 문화마을 사업에 대한 하나의 참고자료로써 뿐만 아니라 농어촌 문화마을에 대한 정책에도 시사하는바가 클 것으로 본다. 연구를 위한 대상지역을 무을지구와 어모지구로 정한 것은 경북에서 제일먼저 추진 되어 완성되었고 그 동안 두 마을에서 생활을 해온 주민들이

그 어떤 곳 보다도 살아온 기간이 길어서 비교적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도에 관한 충실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또한 지역 매스컴에 두 문화마을이 보도된바 있어 지역으로서 지역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곳이라는 이유도 있다.

II. 연구방법

두 문화마을의 단독주택에 사는 세대수는 합하여 201세대로서 무을 지구는 1992년부터 1995년에 걸쳐서 사업기간을 거친 곳으로 79세대가 살고 있으며 구미시나 김천시로부터 어모지구에 비하면 멀리 떨어진 곳이다(그림; 1). 그러나 어모지구는 김천시에 매우 가까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1992년부터 1996년에 사업기간을 거친 곳으로 132세대가 살고 있다. 이 중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주민은 모두 34명이며 무을지구에 사는 주민은 16명이고 어모지구에 사는 주민이 18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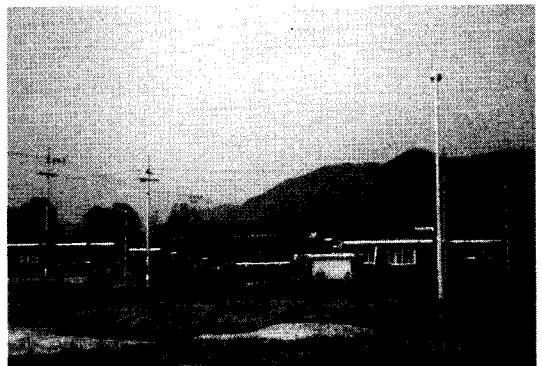
(그림 1; 무을과 어모문화마을 위치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지내오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과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을 각각 두 개씩 표현하도록 인터뷰(interview)를 하였다. 체험을 묻는 질문의 형식은 표준형 설문형식(standard questionnaire)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부터 2개월간에 걸쳐서 개방형 인터뷰(open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질문 내용은 “이곳으로 이사를 오셔서 그동안 지내시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불만족스런 것은 무엇입니까?”였으며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무작위로 하여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마을의 개요

이 연구의 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송삼리 문화마을(그림; 2)과 김천시 어모면 중앙리에 있는 문화마을(그림; 3)을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하였다. 무을지구 문화마을의 경우는 주민의 90%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 반면 어모지구 문화마을의 경우 주민의 15%가 농사를 짓고 있으며 나머지 85%는 주로 김천시에서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무을지구 문화마을에는 상점이 3개, 문화마을과 인접한곳에 면사무소와 약간의 상점 등이 있는 반면 어모지구는 상점이 24개 정도가 중심가로를 따라 있으며 마을입구에 면사무소, 농협, 농산물 간이 집하장등이 있어 비교적 상업시설이 매우 다양하다(표; 1).



(그림 2) 무을문화마을의 전경



(그림 3) 어모문화마을의 전경

〈표 1〉 무을과 어머지구 문화마을의 편익시설

<p>(무을마을) 삼단란커피숍, 주차장, 정수장, 미니공원,</p>	<p>(어모마을) LG전자 대리점, 헤어토피, 아첸속셈학원, 어모 새마을 금고, 나희 미용실, 아첸컴퓨터 세탁, 스머프 양염통닭, 아첸 비디오, 영빈정식당, 아림식품, 은기떡방아제유소, 필라디아유통, 꿀꿀이왕죽발, 문화다정식당, 어모당구장, 문화노래연습장, 화페인트공사, 그날단란주점, 그날 문화수퍼, 문화다방, 책대여전문점, 부산회식당. 복지회관, 근린공원 (놀이터중심)</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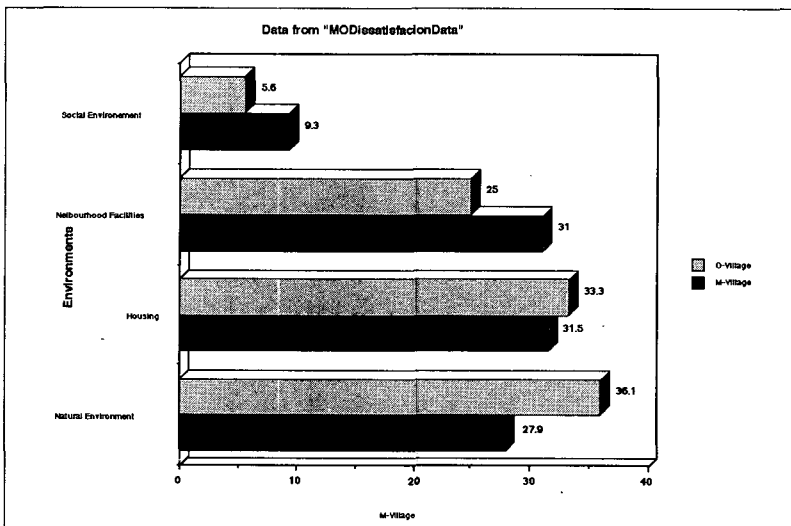
2. 주민들의 긍정적 반응

인터뷰한 결과를 보면 무을면의 문화마을주민들의 가장 만족할만한 사항으로 “물이 좋다(3.1%), 아이들이 좋아한다(3.1%), 쓰레기 버리기가 좋다(3.1%), 주차하기 편리하다(3.1%), 난방이 잘돼서 좋다(6.2%), 집이 깨끗하다(6.2%), 편익시설이 있어 좋다(6.2%), 이웃이 가까이 있어 좋다(6.2%), 조용하다(9.3%), 교통이 편리하다(9.3%), 도로포장이 잘 되어 있다(12.4%), 주택의 현대식 시설이 좋다(15.5%) 그리고 공기가 맑다(15.5%)”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모지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아파트보다 여유가 있다(2.8%), 옛날보다 살기가 좋다(2.8%), 난방이 잘돼서 좋다(2.8%), 이웃이 가까이 있어 좋다(2.8%), 도로가 잘 되어 있다(2.8%), 생활수준이 비슷해서 좋다(2.8%), 주차하기

편하다(2.8%), 주택의 현대식 시설이 좋다(8.3%), 조용하다(11.1%), 집이 깨끗하다(13.8%), 편익시설이 있어 좋다(16.7%), 공기가 맑다(25%)” 등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에 살고 있는 문화마을 주민들은 문화마을에 대하여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터뷰의 결과를 놓고 크게 비슷한 것끼리 묶어 보면, 무을지구와 어모지구의 문화마을사람들의 만족내용은 자연환경, 주거환경(주택과 시설) 그리고 사회환경에 관련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을 문화마을에서 지내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인 내용들을 주거환경으로 63%(주택 31.5%, 시설 31.5%)의 반응을 보였으며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27.9% 정도가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사회환경에 대하여는 9.3% 만이 만족스럽다고 대답하였



(그림 4) 문화마을주민의 만족도, O; 어모, M; 무을, 단위; %

다. 어모지구 문화마을의 경우도 자연환경은 36.1 %, 주거환경은 58.3 % (주택 33.3 %, 시설 25 %) 그리고 사회환경에 대해서는 5.6 % 가 가장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여 무을지구의 문화마을에서 처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보면 두 문화마을의 주거환경은 상당한 수준에서 개선 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3. 주민들의 부정적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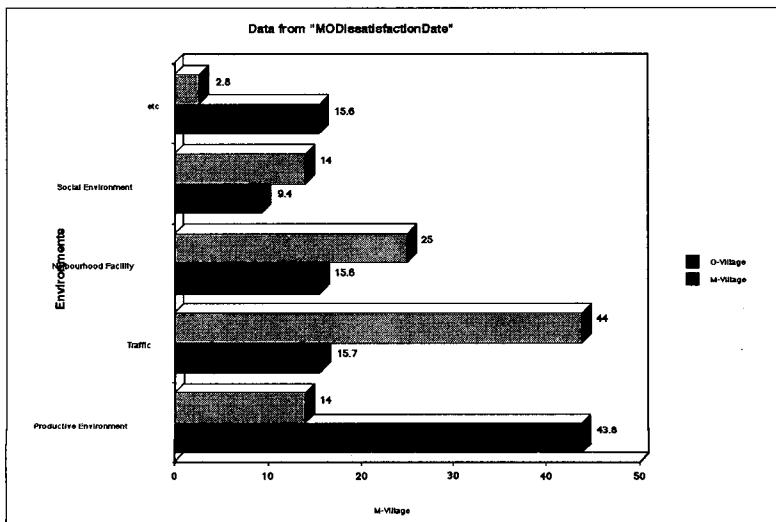
무을지구의 문화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족은 “농작물을 도로에서 말린다(3.1 %), 농민이 생활하기 불편하다(3.1 %), 기반시설이 부족하다(3.1 %), 마을의 단합이 잘 안된다(3.1 %), 생필품을 구하기 어렵다(3.1 %), 문화시설이 부족하다(3.1 %), 편의 시설이 없다(6.3 %), 주택이 너무 호화스럽다(6.3 %), 학교가 너무 멀다(6.3 %), 이웃간 왕래가 없다(6.3 %), 농기계를 둘 장소가 없다(12.5 %), 구미. 선산 가기가 불편하다(9.4 %), 물이 좋지 않다(15.6 %) 그리고 집터가 작다(18.8 %)”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모지구의 문화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족은 “상점이 일찍 문을 닫는다(2.8 %), 집안에 정원이 작다(2.8 %), 물이 잘 나오질 않는다(2.8 %), 소를 키우기 어렵다(2.8 %), 의료시설이 없다(5.6 %),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5.6 %), 생필

품을 구하기 어렵다(5.6 %), 목욕탕이 없다(8.3 %), 농기계를 둘 장소가 없다(8.3 %), 이웃간 왕래가 없다(11.1 %),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11.1 %)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다(33.2 %)” 등으로 나타났

이러한 불만족스런 이야기들을 비슷한 것끼리 나누어 보면 농업생산, 환경, 주거환경(교통과 근린시설) 그리고 사회환경에 관련된 불만족이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두 문화마을의 부정적인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환경에 대한 불만족에 대해서는 무을지구의 주민이 9.4 % 이고 어모지구의 주민은 14 % 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근린상업시설에 대해서 무을지구에서는 15.6 % 가, 어모지구에서는 25 % 가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으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농업환경과 교통에 관련된 것이다. 교통에 관련된 불만족은 무을주민은 15.7 % 정도 인 반면 어모 지구는 44 % 나 된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농업 환경에 대한 불만족은 무을지구는 무려 43.8 % 가 불만족스럽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어모지구의 주민은 14 % 수준이다(그림; 5). 끝으로 무을지구의 기타항목에서 “물이 좋지 않다” 는 반응이 15.6 % 에 이르고 어모지구에서는 “물이 잘 아나온다” 는 반응으로 2.8 % 로써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림 5; 문화마을주민의 불만족도, O; 어모, M; 무을, 단위; %)

수질검사에서 기대했던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난 것이다.

무을지구와 어모지구의 문화마을 주민들은 자연환경, 주거환경 그리고 사회환경에 관하여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거환경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60 %선에 이르는 수준은 매우 높은 편으로, 농어촌지역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현대적인 생활환경의 조성과 소득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 미래지향적인 농어촌마을을 조성하는 목적에 비추어보면, 현대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는 상당한 목적달성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 교통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불만족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무을지역 문화마을 주민들은 43.8 % 가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어모지구의 문화마을 주민들은 14 % 가 불만족 스런 반응을 보이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아마 무을의 문화마을 주민의 90 % 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 반면 어모의 문화마을 주민은 85 % 가 농업이 아닌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쉽게 이러한 반응을 보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24 개 지구 문화마을 입주자중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67 % 인점(농어촌진흥공사, 1996)을 비교해보면 어모지구의 경우는 농촌마을이 사실상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문화마을과 기존농촌마을의 비교평가연구의 결과에서도 대지구모가 작다는 의견이 57.6 % 에 이르고 있다고 했으며 적절한 문화마을의 사업부지선정을 요구하고(임승빈 등, 1995)있음을 보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다는 의견이 43.8 % 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을의 문화마을 주민들은 15.7 % 만이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어모의 문화마을 주민들은 44 % 가 불만족을 보이는 것은 대조적이다. 이러한 현상도 아마 무을지역 주민들은 구미나 김천 등과 같은 도시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반면에 어모지역 주민들은 김천시에 매우 인접하여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도시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모지구의 문화마을은 농어촌주민의 사는 주거공간이 아니라 도시 근교에 사는 도시인들의 주거공간화가 되어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에서도 도시근교의 농촌마을 정비안으로써 민간자본유치방안과 민간자본의 참여여건이 좋지 않은 일반 농어촌지역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추진 방안을 제안하고(박시현, 1998)있음을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경북에서 제일먼저 이루어진 무을지구와 어모지구의 문화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마을환경에 대해 갖고있는 만족과 불만족에 관한 것이며 연구의 목적은 문화마을 주민들의 체험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농어촌의 문화마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주목해야할 내용이 있으며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조성하게 될 농어촌의 문화마을 사업을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도시근교형 문화마을의 조성은 농어민을 위해서 자격을 강화하거나 혹은 택지분양이나 유지관리에 특별한 보완책이 마련되거나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도시근교형 문화마을보다는 도시에서 떨어진 농촌형 문화마을부터 먼저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 다른 한편으로는 농어민들이 문화마을에 생활하면서 농업생산활동에 대하여 크게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도시와 떨어져 있는 농촌형 문화마을을 조성할 경우에는 대지의 크기를 현행보다 크게 늘려서 농기계나 농산물의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도시근교의 도시주민들이 아닌 실질적인 농사를 짓는 농어민에게 더 많이 택지가 분양되고 택지의 적정규모를 산출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 농어촌진흥공사(1996) 문화마을조성사업종합평가(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박시현(1998) 민간자본에 의한 농어촌 마을정비 방안 모색, 한국농촌계획학회 4(1): 32-39.
 이재근(1995) 농촌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사업방향에 관한

- 연구-충청북도 청원군 영하리 미술사레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 1(1): 75-87.
- 임승빈, 조순재, 박창석(1996) 문화(집단)마을과 기존농촌마을의 비교평가에 관한 연구-월암 1리와 우항 2리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 1(1) 49-63.
- 임승빈, 조순재, 박창석, 이춘석, 복준호(1998) 농촌문화마을 주거환경을 위한 공간계획 방향연구-경기도 양평군 광탄리 용문지구 문화마을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지 4(1) 22-31.